No.1970

하늘마음

성전에서 환전상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

[작가 미상, 1570년경, 목판에 유채, 91×150cm, 카드리오르그 아트 박물관, 탈린.]

그림 가운데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온 끈을 집어 단단한 채찍을 만들어서 사정없이 상인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계신다. 채찍을 든 오른팔을 힘있게 들어 분노를 표출하는 예수님의 강한 카리스마는 화면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예수님의 뒤에는 모세가 율법이 새겨진 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축제일에 바치는 제사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림 오른쪽 뒤에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무수한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2015년 3월 8일 사순 제3주일 인천주보 3면]

2021년 3월 7일 사순 제3주일 (자)

입 당 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20,1-17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www.foryouth.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 회관 106호
발행인 | 박재득 테오도로 신부님 **구독신청** | 가톨릭 출판사 (대표전화 _ 1544 - 1886)
미디어부 | 문혜지 아셀라, 강미림 엘리사벳, 양유정 미카엘라, 윤운상 멜라니오, 김병수 베드로, 김해리 헬레나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정연욱 소화데레사

교회는 왜 나치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가톨릭 출판사
《하느님과 트윗을》 중

비오 11세 교황은 1931년에 회칙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Non Abbiamo Bisogno〉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회칙 〈깊은 근심으로Mit Brennender Sorge〉에서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와 그들의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나치즘에 강력히 반대하는 최초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정부도 나치즘을 그렇게 분명하게 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에 교황은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단죄했습니다.

전쟁과 침략

1939년, 비오 12세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그는 "정의의 길은 건전한 이성의 힘에 있지 군대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평화를 필사적으로 촉구했습니다(1939년 8월 24일). 그의 첫 회칙 〈교황직Summi Pontificatus〉은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입을 단죄했습니다. 교황은 인종 차별주의, 반유다주의, 전체주의의 위험을 지적하였고 무력 충돌의 참상을 서술하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도좌는 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했지만 1942년 예수 성탄 대축일 연설에서는 "때로는 단지 국적이나 배경 때문에 무죄하게 죽음에 처해지거나 착취당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1942년 12월 24일). 그 후에 교황은 또 전쟁의 다른 많은 참상들도 단죄했습니다.

외교

이면에서는, 사도좌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동맹국들과 함께 잘 이루어졌습니다. 기록 문서들에 따르면 교회는 유대인들을 포함해 나치에게 박해를 받은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나치가 교황을 자기들의 적으로 여긴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로와 피난민을 위해 바티칸 정보기관은 실종된 수백만 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 나치나 혹은 파시즘의 박해 피해자들 수천 명은 로마와 다른 곳에 있는 종교 기관에서 피신처를 찾았습니다(더 알기 참조). 교황이 직접적인 대결 대신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나치에 항의하는 법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비판과 칭송

전쟁 후, 비오 12세 교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황에게 최고 영예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서야 교회에 대한 호된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이 유대인들의 고통에 둔감했고, 심지어는 유대인 대학살에 침묵함으로써 공모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그리고 전후에 이러한 혐의를 살포하고 홍보한 것은 소련 선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과 전쟁 후에 교회에 전달된 깊은 감사의 수많은 표현들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40년 〈타임〉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히틀러의 진실을 감추려는 캠페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12월 23일자 38쪽) 다른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도 전쟁 후에 교황을 칭송했습니다. 세계 유대인 회의는 교황에게 "전쟁 중에 유럽 전역의 유대인을 대표하여 가톨릭교회의 노력에 최대한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945년 9월 23일자 1면).

날으는 CYA

Vol.1006 |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발비나가 치우자고 할 때 쫌 멋있었어.
추진력 갑!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처럼?
예수님도 청소를 하셨나?
아버지 집에서 이게 뭐야!
성전을 더럽히면 안되지~
성전은 어떤 곳이라 생각해?
주님을 만나는 곳! 성체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
성체를 영하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가 있는 너도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라고?
응~ 그러니 자주 청소해야 해.
망했어~
성당 가지 마
막 살아봐
짜증내
치워라!
깜짝
휴우~ 유혹이 막 달라붙네...
내 안을 청소해야 만날수 있어.
예수님!
매일매일 성전 청소하기.

유럽의 순교자들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압구정동 성당 부주임

CYA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박해받던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성장하여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끝내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것은 어느 황제의 무슨 칙령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지요.

그림 1. 서방 수도생활의 창시자로 불리는 성 베네딕토. 박해가 끝나고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교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제국의 국교가 되지요.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순교로 믿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뜻이 모여 원시적인 형태의 수도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딴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은수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이름있는 스승 밑으로 은수자들이 모여 사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수도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청빈, 순명, 정결의 복음삼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한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피흘림 없이 하느님 사랑을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백색(白色) 순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 제국의 영역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은 때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살해당하여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게르만족에 의해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난 뒤 유럽은 수많은 게르만 왕국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6세기까지 이들은 거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문제는 정통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이단인 아리우스파를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받고서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래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와중에 이교도 부족에게 공격받아 순교하신 분들도 나옵니다.

이후 유럽의 패권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1세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의 프랑크 왕국이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 정통 신앙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의 통치가 복음적 가치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투쟁을 위한 권모술수가 횡횡하였고 잔인하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에는 참된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권력자들의 악행을 꾸짖다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지금의 스페인과 포루투갈이 자리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8세기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492년 레콩키스타, 곧 국토회복운동이 완성될 때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국가들과 그리스도교 국가들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 속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개신교 운동으로 유럽이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세우고 나서 가톨릭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많이 순교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도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여서 많은 순교자가 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순교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2. 성 알바노 순교자. 독일 마인츠 지방에서 아리우스 이단을 상대로 정통 신앙을 가르치다 살해당하였다.

그림 3. 영국의 순교자인 성 토마스 모어. 헨리 8세의 비서를 거쳐 왕국 재상까지 올랐지만 국왕의 수장령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다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CYA
방구석 영화관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보이는 세상, 원더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도 지나고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새 학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히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원더, 2017』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어기는 안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기는 무려 27번의 대수술을 받은 끝에 보고, 듣고 숨 쉬는 게 가능한 얼굴이 되었죠.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어기는 늘 밖에선 헬멧을 쓰고 홈스쿨링을 하며 자라납니다. 10살이 된 어기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부모님은 큰 마음을 먹고 어기를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첫 날부터 쉽지 않았던 어기의 학교생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며 상처를 받고 좌절하던 어기는 학교생활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 그리고 누나 비아에게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친구를 만들고, 과학 실력을 뽐내며 긍정의 힘으로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 어기. 과연 어기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영화는 주인공 어기뿐만 아니라 어기의 부모님, 특별한 동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내놓은 누나인 비아, 어기의 친구인 잭, 비아의 친구 미란다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어기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저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영화에서는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기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하고 있어요.
어기를 괴롭히던 줄리안의 부모님과 면담하던 날, 교장선생님은 줄리안을 옹호하는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줄리안 어머님, 어기는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비록 장애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헬멧을 벗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는 어기의 성장이 빛나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구석 영화관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그림 출처] 네이버 영화

문혜지 아셀라 / 미디어부 부서원